

[기획]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8) 대구 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 '틈세'

우리들의 행복한 '문화 아지트'

▶ 아이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탭댄스 공연을 하고 있다.



“자, 선생님을 잘 보고 천천히 따라해 봐. 하나 둘 하나 둘.” 탭댄스용 구두를 신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해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탭댄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째, 처음 접하는 거라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바닥을 울리는 경쾌한 소리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 같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24일,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인근의 4층짜리 건물에 자리잡은 '틈세'는 40여명의 중·고생들로 북적거렸다. 한쪽에서는 탭댄스를 배우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다른 교실에서는 연극 연습에 한창이다. 또 다른 방에서는 작은 연습용 북을 두드리며 타악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틈세'는 아이들에게 문화 해방구 같은 곳이다. 조금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처럼 풍족한 문화 생활을 누리지

는 못하지만 아이들은 '틈세'에서만 진행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 행복하다. '틈 사이로 보는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이름을 따온 '틈세'는 지난 2002년 첫발을 댄 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다. 이틀에서 알 수 있듯, 이곳에서는 '학습'과 '문화' 활동이 동시에 이뤄진다. 60명의 아이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게 학습지도와 문화활동을 해 나간다. '틈세'가 처음부터 '문화'에 주목했던 건 아니다. 출발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외'였다. 경북대생들을 중심으로 1년 정도 아이들의 집을 개별 방문, 공부를 가르친 게 그 시작이었다. 그해 150명의 대학생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열면서 '함께 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경북대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이곳으로 불러 공부를 시작했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공부'로만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문화'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이 때 한 선생님의 제안으로 아이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설피지만 첫번째 발표회를 가진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이 때부터 '문화'는 틈세의 또 다른 축이 되었다.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은 컸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틈세'를 이끌어가는 건 40여명의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다. 봉사자들은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자, 다양한 문화 교실을 이끌어 가는 강사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전문극단에서 직접 연극을 배우는 등 실력을 연마, 아이들을 가르친다. 선생님들은 또 문화축제 때는 아이들과 직접 무대에 올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간다.

현재의 건물로 이사온 건 지난 2006년이었다. 현재 '틈세'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선희씨가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수여하는 '볼보 포 라이프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2천만원을 종자돈으로 내놓았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직접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칠을 하며 지금의 아지트를 만들었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다. 봉사자들의 경우 모두 무보수로 일하지만,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만만치 않을 때 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운영비로 보태고, 장학금을 내놓는 이들도 많았다.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심심일만 힘을 보탠다.

최근에는 각종 사회복지 재단의 공모 사업 등에 응모,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문화축제' 등을 진행하려면 술하게 발품을 팔며 후원자를 물색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아이들이 매년 연말에 열리는 문화축제에 서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 지 몰라요. 준비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데 뿌듯함도 느끼죠.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죠.”

'틈세' 창립부터 함께 시작한 현재는 조지 운영을 맡고 있는 이창호(27)씨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teumse.com>

/대구=글·사진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2년 '무료 과외'로 출발...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동참
뮤지컬·탭댄스·마칭밴드 새로운 시도...매년 문화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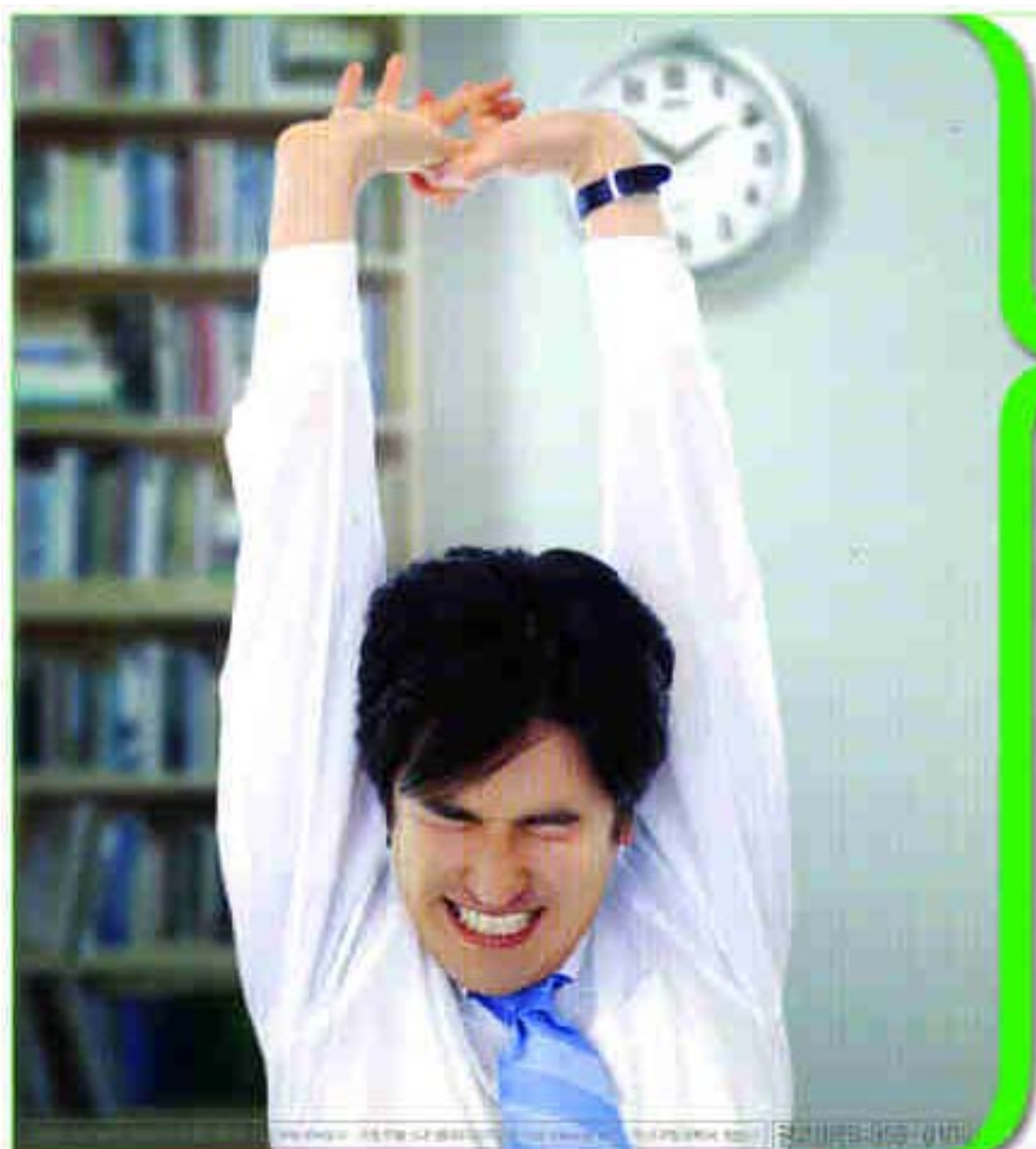


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 '틈세'는 연극·뮤지컬·탭댄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 열린 '틈세 문화 축제'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는 모습.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부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마칭밴드 공연 모습.



건강 100세를 살려내는 ILDONG 일동제약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풀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항산화제: 베타카로틴·E·셀레늄·비타민 C·비타민 E
*기타: 나이아신·비타민 B6·비타민 B12·비타민 B2·비타민 B3·비타민 B5·비타민 B7·비타민 B9·비타민 B10·비타민 B11·비타민 B13·비타민 B14·비타민 B15·비타민 B16·비타민 B17·비타민 B18·비타민 B19·비타민 B20·비타민 B21·비타민 B22·비타민 B23·비타민 B24·비타민 B25·비타민 B26·비타민 B27·비타민 B28·비타민 B29·비타민 B30·비타민 B31·비타민 B32·비타민 B33·비타민 B34·비타민 B35·비타민 B36·비타민 B37·비타민 B38·비타민 B39·비타민 B40·비타민 B41·비타민 B42·비타민 B43·비타민 B44·비타민 B45·비타민 B46·비타민 B47·비타민 B48·비타민 B49·비타민 B50·비타민 B51·비타민 B52·비타민 B53·비타민 B54·비타민 B55·비타민 B56·비타민 B57·비타민 B58·비타민 B59·비타민 B60·비타민 B61·비타민 B62·비타민 B63·비타민 B64·비타민 B65·비타민 B66·비타민 B67·비타민 B68·비타민 B69·비타민 B70·비타민 B71·비타민 B72·비타민 B73·비타민 B74·비타민 B75·비타민 B76·비타민 B77·비타민 B78·비타민 B79·비타민 B80·비타민 B81·비타민 B82·비타민 B83·비타민 B84·비타민 B85·비타민 B86·비타민 B87·비타민 B88·비타민 B89·비타민 B90·비타민 B91·비타민 B92·비타민 B93·비타민 B94·비타민 B95·비타민 B96·비타민 B97·비타민 B98·비타민 B99·비타민 B100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2·B6·B2·B1·B3·B5·B7·B9·B10·B11·B13·B14·B15·B16·B17·B18·B19·B20·B21·B22·B23·B24·B25·B26·B27·B28·B29·B30·B31·B32·B33·B34·B35·B36·B37·B38·B39·B40·B41·B42·B43·B44·B45·B46·B47·B48·B49·B50·B51·B52·B53·B54·B55·B56·B57·B58·B59·B60·B61·B62·B63·B64·B65·B66·B67·B68·B69·B70·B71·B72·B73·B74·B75·B76·B77·B78·B79·B80·B81·B82·B83·B84·B85·B86·B87·B88·B89·B90·B91·B92·B93·B94·B95·B96·B97·B98·B99·B100

제품문의 080-022-1010(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

*1일 2회 복용하세요